

유럽

- 튀르키예, 대테러 작전을 통해 ISIS 추종자 180여명 체포
  - 12.25 외신은 튀르키예 정부가 최근 3주 동안 22개州에서 대테러 작전을 통해 △테러단체 가입 △테러 지원 및 교사 △테러자금 조달 등 혐의를 받는 ISIS 추종자 180여명을 체포하였다고 보도
    - ※ 同 작전은 ISIS 테러 대응에 대한 튀르키예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부언

중 동

- 시리아, 「아사드」 정권 축출 後 종교갈등 테러 우려
  - 12.26 언론은 시리아 「아사드」 정권이 反軍에 의해 무너진 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, 기독교 단체 측은 신도들 보호와 차별 방지를 헌법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
    - ※ 반군 정권은 과거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엄격한 이슬람 통치를 한 이력이 있으며, 현재는 알카에다와 단절하고 다른 형식의 통치를 할 것이라 공언中
- 이스라엘, 가자 급습해 의사 등 240명 구금
  - 12.29 언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마지막 의료시설인 카말 아드완 병원을 급습해 병원장과 의료진 등 240여명을 구금했다며 이스라엘은 병원이 하마스 지휘 본부로 사용돼 공격을 단행했다고 보도
    - ※ 병원장「아부 사피야」은 하마스 요원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의료진 수십명을 포함해 구금된 다른 240여명에 대해서는 ‘테러리스트’라고 표현했다 부언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무슬림 공격으로 기독교인 14명 사망
  - 12.30 외신은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성탄 예배 중인 기독교인 14명을 피살하였다고 보도했으며, 나이지리아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발표
    - ※ 나이지리아 언론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만6,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급진화된 무슬림 풀라니 목축민에 피살된 것으로 분석

아 · 태평양

- 인도네시아, 온라인상 테러 관련 콘텐츠 단속 강화
  - 12.25 외신은 인도네시아 국가테러대응국(BNPT)이 올해 극단주의 및 테러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 18만여개를 차단하였다고 전하는 한편,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커지고 있는 극단주의 위협을 경고했다고 보도
    - ※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테러 용의자 190여명이 체포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부언
- 韓, 시리아 테러단체 자금지원 외국인 송환
  - 12.26 시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후 미국으로 떠난 외국인 유학생을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했으며,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보도
    - ※ 「김주상」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은 ‘반인륜적인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액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’라고 부언
- 탈레반, 파키스탄 공습에 보복 공격
  - 12.28 언론은 파키스탄軍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너머로 공습을 감행하면서 수십명이 사망하자 탈레반이 파키스탄에 보복 공격을 가해 국경 수비대원 19명과 아프간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 보도
    - ※ 앞서 아프간 국방부는 파키스탄軍이 지난 24일 파티카州 바르말 지역 등 4곳을 공습해 46명이 사망했다 부언
- 아프가니스탄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 증가 우려
  - 12.30 언론은 테러 위협과 치안 불안 등을 우려하는 각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찾는 미국, 영국, 캐나다, 중국, 러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
    - ※ 언론은 '21년 8월 美軍 철수 이후 탈레반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 중이며, 이는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달러 등이 긴요한 자금줄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언

**필리핀 민다나오섬 백화점 폭탄테러**

- '18. 12. 31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코타바토市 소재 백화점 입구에서 사제폭발물 폭발로 2명 사망 · 32명 부상
  - 폭발은 쇼핑물 2층 복도에서 발생했으며, 당시 백화점에는 새해 선물을 구매하려는 인파가 몰려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주변 건물에도 피해
  - 경찰은 ‘한 남성이 가판대 위에 놓고 간 박스가 수 초 뒤 폭발했다’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 추적을 시도했으나 실패
- 민다나오 섬은 오랜 기간동안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과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, 2017년 마라위 市에서 ISIS 연계 세력과 정부군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 지역으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
- 필리핀 軍 당국은 ISIS·알카에다를 추종하며 민다나오 지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\*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
  - \* 마우테그룹(Maute Group)·아부사야프그룹(ASG)·방사모로 이슬람자유전사(BIFF) 등

**< 마우테 그룹(Maute Group) >**

- **(결 성)** 모로이슬람해방전선(MILF)과 정부의 평화협상 추진에 반발한 일부 MILF 세력들이 ISIS를 추종하며 '13년에 결성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18. 2)
- **(목 표)**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 이슬람 독립국가 건설
- **(활동지역)**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(특히, 라나오 델 수르州 주변 산악지역)
- **(주요활동)** ① '16. 4월 마라위교도소 습격(탈옥 20명)
  - ② '16. 9월 다바오州 재래시장 폭탄테러(사망 14명, 부상 67명)
  - ③ '17. 5월 마라위市 점령 및 상당 인질극 자행
    - \* 마라위 전투('17. 5월~10월) : 마우테 형제 및 주요 지도자 사망 → 그룹 활동 약화